

# 국제유가 폭락에도 휘발유값 '그대로'

광주·전남 주유소 여전히 0당 평균 1500원대

소비자들 "오늘때는 전광석화 내릴때는 함흥차사"

국제유가가 반년 만에 배럴 당 40달러 대로 폭락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1500원 대에 머물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일 한국석유공사가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배럴 당 65.06달러로 올해 들어 정점을 찍었던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이후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지난 달에는 46.23달러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 평균값은 8월 넷째주 기준 리터 당 1532원으로 두바이유 가격이 정점을 찍었던 5월 첫째주(1516.28원) 대비 오히려 15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 기름값은 두바이유가 올

들어 가장 낮았던 1월 둘째주(43.98달러)의 1531.05원에 비해서도 높다.

이처럼 국제유가에 비해 주유소 기름값의 하락폭이 작은 것은 국내 석유류 제품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제유가 하락분만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점이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환율과 관세, 수입과과금, 국내 유통비용 등이 더해져 최종 판매 가격이 결정된다.

원·달러 환율의 급등 역시 유가 하락분을 상쇄하는 요소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일정기간 변동이 없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20% 상승하면 정유사 공급가격에는 20% 만큼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31일 기준 1182.50원으로 올해 들어 저점이었다던 4월29일의 1068.10원과 비교하면 10% 이상 상승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두바이 유를 대거 수입하면서 유가 하락분만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데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내 휘발유 제품가격이 유가 하락분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휘발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주유소 기름값이 여전히 1500원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오늘 때는 '전광석화'지만 내릴 때는 '함흥차사'라는 것이다.

광주에서 나주로 출퇴근하는 고모(47)씨는 "올해 초에는 1300원대 주유소가 상 당했는데 지금은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1400원대도 많지 않고 1300원대 주유소는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유가가 오른다는 뉴스 나오면 다음날 바로 반영하고 폭도 100원, 200원씩 오르지만 내릴 때는 3일 기다렸다가 18원씩, 9원씩 10원 단위로 내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변동분은 통상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 제품가에 반영되는데 국제유가가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기름값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1일 광주·전남 지역 휘발유 평균가는 리터 당 각각 1496.01원과 1518.60원으로 전국 평균가 1520.69원보다는 낮았다. 최저가로 판매하는 주유소는 광주 시 광산구 평동제일주유소로 보통휘발유를 리터당 1439원에 판매하고 있다.

# ATM, 100만원까지 30분 지연 인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예방

9월 2일부터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제' 적용 기준액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권의 추가 조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농수산림협동조합, 증권사, 우체국은 2일부터 자동화기기 30분 지연인출제의 기준금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아울러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도 같은 기준으로 제한된다. 계좌에 100만원 이상이 입금된 뒤 30분 동안 해당 계좌로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 인출과 이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애초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300만원 이상에 대해 10분간 자동화기기 인출을 막다가 지난 5월 말부터

지연시간을 30분으로 늘렸다. 이후 사기범들이 30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는 '금전 쪼개기 수법'을 쓰자 금융당국이 대응조치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사기와 피해금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장구를 통한 인출이나 이체는 지연시간 없이 가능하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이체도 바로 할 수 있다. 이들 금융기관은 그간 고객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인출 제한 조치가 강화된 사실을 알려왔다.

자동화기기에서 300만원 이상을 인출하는 비중은 전체의 0.4%, 100만원 이상은 2.2% 수준이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오는 16일부터, 신한은 30일부터, 저축은행은 10월 1일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에 대해 30분 지연 인출·이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외환은행 역사속으로

KEB하나은행 출범

외환은행 본점 출입문 앞에 세워진 보드 판에 쓰인 직원들의 글이다. 1일 KEB하나은행의 출범으로 지난 48년간 국내 외환업무의 절대 강자였던 외환은행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KEB(Korea Exchange Bank)라는 영문명이 남아있지만 하나은행과의 통합으로 '외환'이라는 이름을 내건 은행은 이제 문서 상으로만 남게 됐다. KEB하나은행의 존속법인인 외환은행이다.

외환은행은 1967년 외국환 전문은행을 키우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한국은행 외환관리과에서 독립해 출범했다.

1970~80년대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과 맞물려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과 영업을 지원하며 외환과 무역금융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굳혔다.

1994년 증권거래소에 상장했고 이듬해 일반공모 2200억원을 포함한 자본금을 8250억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외환위기는 거대한 파고 탓에 1999년 최대주주인 하나은행에서 코메르츠뱅크로 바뀜으로써 외국계 자본의 지배를 받게 됐다. 급기야 2003년에는 미국계 콘스탄티드에 인수됐다.

외환은행은 이후 국민은행, HSBC 등에 매각될 뻔했으나 2012년 2월 하나금융에 인수됨으로써 하나금융지주의 100% 자회사가 됐다.

이후 3년 만에 하나은행과 한 몸이 되면서 은행 무대에서 사라지게 됐다. /연합뉴스



지난 31일 김중용 기아차 광주공장장(왼쪽 첫번째)과 이기곤 기아차 노동조합 광주지회장(오른쪽 첫번째)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기아차 광주 2공장의 모든 생산 공정을 거쳐 Line-Off 되고 있는 'The SUV, 스포티지' 1호차 양산을 축하 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 기아차, 4세대 뉴 '스포티지' 본격 생산체제

1호차 양산 기념식

세계시장 석권을 목표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야심차게 준비해온 'The SUV, 스포티지'가 1일 첫 출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했다.

기아차 광주공장(공장장 김중용)은 지난 31일 기아차 광주2공장서 노사 대표가 함께한 가운데 'The SUV, 스포티지' 1호차 양산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은 광주2공장의 모든 생산공정을 거쳐 'The SUV, 스포티지' 1호차가 탄생하는 순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열렸으며,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The SUV, 스포티지'는 노사가 손을 잡고 1년6개월 간의 노력 끝에 탄생시킨 스포티지 신형 차량으로, 광주공장을 대표하는 글로벌 명차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0년 출시한 3세대 모델인 스포티지 R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4세대 풀체인지 모델이다.

디자인 키워드를 '스포티&파워풀 에너지(Sporty & Powerful Energy)'로 잡고 혁신적인 조형과 풍부한 볼륨감을 바탕으로 기존 모델보다 한층 강인하고 진보적인 SUV 스타일을 구현했다.

김중용 기아차 광주공장장은 "광주공장의 환한 미래와 희망을 밝혀주기 위해

모두의 간절함과 소망이 응축된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The SUV, 스포티지가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명차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기곤 기아차노동조합 광주지회장은 "오늘은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탄생시킨 The SUV, 스포티지가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노조는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신형 스포티지가 이전 스포티지의 바통을 이어 받아 광주공장을 대표하고, 나아가 기아차를 대표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신세계그룹 내년까지 2만명 채용

15일 서울 aT센터 '신세계그룹&파트너사 채용박람회'

신세계그룹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2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해 초 향후 10년간 해마다 1만명 이상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비전 2023'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 1만3천500명을 신규 채용했다.

올해 1만4500명을 채용하고 내년도도 비슷한 수준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그룹은 고용난 해소 차원에서

서 오는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협력사와 함께 '신세계그룹&파트너사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신세계푸드, 신세계엔터테인먼트, 스타벅스 등 신세계 계열사 10곳과 에르메스코리아, 신송식품, 청유식품 등 협력사 115곳 등 총 125개 기업이 참여한다. /연합뉴스

# 광주은행, 추석자금 3천억원 푼다

특별대출 내달 16일까지

광주은행(은행장 김환)은 올 추석 무렵에 지역 중소기업의 돈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추석 중소기업 특별 자금대출을 편성, 오는 10월 16일까지 긴급 지원한다.

또 광주은행은 3000억원의 만기연장 자금을 함께 편성해 이 기간 중 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주가 원할 경우 만기연

장을 해주기로 했다.

이번 추석 특별대출은 추석 명절 민생안정 대책으로 진행되고,노무라비체불금 지급, 원자재 구입 자금, 긴급 결제자금 등에 지원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30억 원 이내며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자금 차입 때 최고 1.5% 포인트까지 우대해 업체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14.23 (-27.26)	▼ 금리 (국고채 3년) 1.73% (-0.01)
▼ 코스닥 672.94 (-14.17)	▼ 환율 (USD) 1171.80원 (-10.70)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

**특허방수** 특허(제10-1239196호), 특허(제10-0562035호)

##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낡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제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반백